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8.22(화) / 총2매(본문2)
담당부서	신공항기획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주종완, 사무관 김진성, 주무관 정광성 • ☎ (044) 201-4137, 4142, 4143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“김해신공항의 문제점(동남권신공항 TF 합동보고회)” 보도 관련

- 김해신공항 사업, 부울경 TF 합동보고회 관련 보도된 사항에 대해 사실여부 및 국토부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.
-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
 - 김해신공항은 연간 3,800만명의 지역수요 처리가 가능하고, A380 등 대형 항공기 운항을 통해 유럽,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하도록 시설계획 중입니다.
 - 해외 주요공항(히드로, 샤를드골 등)들도 야간비행 제한시간을 적용하면서 대규모 수요처리를 하는 것과 같이 김해신공항의 경우도 수요처리를 위한 영남권의 관문기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.
 - 또한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(CAT I → II · III), 대형항공기(A380 등) 운항,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 김해신공항은 현 김해공항의 수준을 대폭 뛰어넘는 시설 및 운영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.
- 사전타당성용역에서 군공항, 민간공항 관련법 미 적용 및 과업 지시서 미 준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
 -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모든 후보지를 대상으로 항공법,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입지를 평가하였으며,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 하였습니다.

- 다만, 군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공항의 군공항 또는 민공항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는 관계로 군 기준을 적용해야 할 법 규정이 없었습니다.
- 현재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공군과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민·군기준 적용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.

○ **안전·소음, 확장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**

- ADPi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항공법(현 공항시설법)에 의한 장애물 제한표면(OLS) 검토,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등의 국제기준에 의한 장애물 평가표면(OAS) 검토, 충돌위험 모델링(CRM)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성을 검토 하였습니다.

* (OLS) Obstacle Limitation Surface
 (ICAO)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
 (OAS) Obstacle Assessment Surface
 (CRM) Collision Risk Model

- 소음 현장조사 미 실시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는 **신활주로 방향은 측정이 불가하여 추정**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며, 美 FAA의 소음예측 프로그램(INM)을 통해 소음가구수를 분석 제시 하였고 현장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.

□ **김해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추진과 관련하여**

- 국토부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8월말 개최 예정이며, 기본계획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.

<관련 보도내용(조선일보, 8.21. 연합뉴스, 8.21. 노컷뉴스, 8.21. 부산일보, 8.21) 등>

- ◆ (조선일보) “24시간 운영 불가 등 관문공항이 아닌 거점공항 등”
- ◆ (연합뉴스) “관련법 미적용, 과업지시서 미준수”
- ◆ (부산일보) “관문공항이 아닌 거점공항, 안전소음 등 조사부실, 시설운영기준 미비”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김진성사무관(☎ 044-201-41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